

# 21세기 이끌 힘은 '관용의 정신'

### '간디가 온다' 기 소르망 지음

카스트는 단순히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구시대적 산물인가. 이슬람은 정말 공신도의 집단인가. 이러한 도발적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인도의 정신과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이 쓴 이 책은, 다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로 인한 갈등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인도의 관용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탐색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르망은 간디의 정신이 21세기를 위해 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정의로로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자유와 평등)을 뒤집는다. 또 우리가 얼마나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이성주의에 젖어 다양한 사고의 물결을 열고 있지 못한가를 일깨운다. 그 일깨움의 통로가 바로 인도이고 그 중에서 인도 정신의 꽃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간디주의가 그 논지의 핵이다.

특히 소르망은 인도의 메시지 즉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과학과 합리주의에 힘입어 현재 인류문명의 토대를 이룬 이 사고방식 자체

### 직관·여성성·다원주의의 문화 과학·합리주의의 병폐 치유책

에 그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사고방식이 인류를 극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종교가 다른 하나의 종교를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기독교와 회교도 간의 전쟁이 인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인도에서의 기독교

를 들고 있다. 기독교가 인도에 유입된 상황,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인도에서 배척받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비교적 성공적인 포교라고 해야 할까. 예수를 신(神)의 화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신들 중의 하나로 첨가하는 그들의 관용정신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과 문명충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러한 관용정신은 수동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뚜렷한 자의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개인적 사유는 굴복이 아니라 저항정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간디의 정신인 비폭력·저항주의로 연결된다.

소르망은 이러한 인도의 관용 정신이 다시 인류에게 제4의 물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것은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이며, 이성과 합리를 따지기보다는 직관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명 충돌로 이어지는 인류의 재난에 대한 완충작용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출판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것이야말로 인도의 진정한 관용정신이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인 것이다. 값 1만2천원.

# 도량 잡귀 물렸거라 덩실덩실 바라춤을

### '천수바라춤' 능화 스님 지음

불보살의 강림이나 의식 도량의 옹호와 정화를 위한 불교 의식 작법인 바라춤은 불교무용의 백미로 꼽힌다. 회색 장삼에 붉은 가사, 두 손에 바라를 들고 장중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몸을 놀리는 이 춤은 화려함을 끌어낸다. 무릎과 허리 놀림이 덩실덩실하고 발놀림이 또박또박 절제미가 있다. 이러한 바라춤은 크게 천수·사다리나·관음계·요잡·바라춤 등 모두 8가지로 나누어진다.

<천수바라춤> (한국불교무용연구소)

은 이 가운데 <신묘상 구대다라나>에 맞추어 추는 천수바라춤의 춤사위와 무보(舞譜) 등을 천착한 연구서다. 지음은 무렵 스님에게 작법무를, 일운 스님에게 상주권공을, 송암 스님에게 각배와 영상을 배운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 능화인친 구양사 주지 스님. 스님은 '불교음악 법배와 법배승의 계보' '진언수행과 불교무용' 그리고 바라춤의 기원, 종류, 춤사위를 분석한 다음 천수바라춤을 집중 분석한다.

천수바라춤 음악 훑소리(다라나)와 태평소의 오선보, 태평소의 정간보 그리고 천수바라춤의 무보를 사진과 그림으로 재현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불교무용 바라춤의 문화 복지 활용방안까지 수록해 공연예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산재 보존회장 인공 스님은 "진감곡사의 묘음을 이은 송암 스님의 법배으로 계승 발전되어진 범무 바라춤이 사진영상을 통해 무보화되는 것은 불교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평했다. 값 1만5천원.



# 참선수행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박영재 엮음

'하루 한 시간 타는 시간 앉지 않으면 굶는다.' 선도회(禪道會)의 가풍 가운데 하나다. 선도회는 효봉 스님의 후원으로 이희의 씨가 1965년 조직한 재가수행도임이다.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 (은주사는 선도회의 성립 과정과 창시자 이희의 씨의 생애 그리고 선도회의 활동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선수행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참선수행은 중국 남송의 대혜종고 선사 주장한 간화선을 말한다.

선도회는 바로 간화선의 전통을 복원하여 이를 재가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간화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자 화두와 '좌선' 그리고 '입실(入室)지도'다.

엮음이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선은 끈기와 올바른 지도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실린 다양한 경험들 즉 남녀노소, 신분, 직업을 초월한 재가불자의 수행담이 이를 잘 말해주겠다. 값 8천5백원.

# 앞 못봐도 하고픈 일 할 수 있어

### '타슈' 사브리예 텐베르켄 지음

티베트는 아직도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쁜 짓을 한 데 대한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거나, 귀신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도 한다. 때문에 티베트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가족 내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고 구걸하러 내보내진다. 심지어 침대에 묶어 비싼 출입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타슈> (엄정순 옮김, 샘터)는 시력은 잃었으나 빛과 사물 그리고 색깔을 기억하는 티베트 시각장애 소년 타슈가 라사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1998년 티베트 시각장애인센터를 건립한 사브리예 텐베르켄이 노년 선생님과 타슈와의 애뜻한 만남의 과정을 소설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타슈 개인에 머무르기보다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준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장애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열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값 8천5백원.

# 싱구로 풀어난 수행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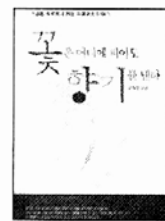
### '길손여행' 우학 스님 지음



<장가안기길 갔네> 등 수행과 신행지침서를 내놓았던 우학대구 관음사 회주 스님이 시집 <길손여행> (좋은인연)을 냈다. 연꽃과 들꽃 사진이 함께 수록된 시집에는 출가부터 지금까지 스님의 수행 궤적이 짧은 시어로 함축돼 있다. "가슴을 방망이질 하며/ 어디까지라도 따라 올 것 같았던/ 늦은 오후 업장의 긴 그림자는/ 일주문 큰 그늘에 가려서 지워졌다..." 우학 스님이 절집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심정을 읊은 시 '출가'다. 이 시집에는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느낀 단상을 적은 85편의 시가 실려 있다. 값 1만원.

# 백유경서 뽑은 삶의 지혜

### '꽃은 어디에 피어도...' 최복현 지음



마라국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병이 위중하여 두 아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고 유언했다. 아버지가 죽자 두 아들은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그 때 형이 아우에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자, 한 노인이 "웃과 돈은 반으로 찢고, 밥상도 부수가 두 몫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꽃은 어디에 피어도 향기를 낸다> 지혜의 나무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거나, 작은 이익에 급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불교화평경전 <백유경> 등에서 가져다 뽑은 이 이야기들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값 7천8백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파이나두라 대논쟁	오진	운주사
2	성철 스님 시흥이야기	원택	김영사
3	내가 본 부처	도법	호미
4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일	불광
5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6	미타신앙 미타기도법	김현준	호미
7	빠피삼비다따가여주	임승택	가산문고
8	풍경소리	경경소리	샘터
9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	틱 닛 한	나무심는사람
10	금강경 이해	각목	불광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송산 선사 공안집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 12,000원  
협양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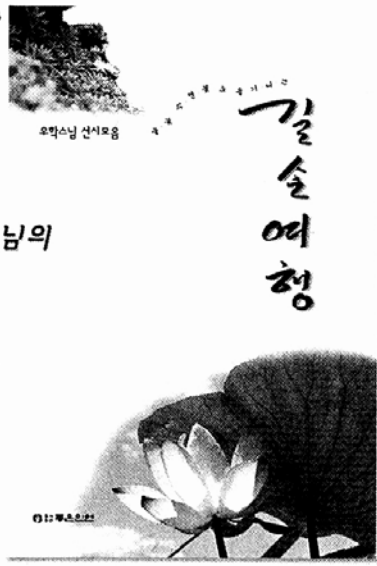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번 책은 수 년 만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메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지회를 엮어냅니다. 단 아하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 길손여행

살면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딱딱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15 x 22cm / 208페이지 / 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법보시 아시면 알립니다."

우학스님의 신서, 들꽃, 연꽃, 맨발승... 문의 053)474-8229

#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 시인 장용철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감동을 읽는다. 순간을 읽는다!

이말이나 나리만자부의 만년설(萬年雪) 곡대기에 가이만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밑 강아지를 만물기에서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평양 버섯을 두 먹어 보이만 바다가 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동명의 물 안 방울만 찍어 먹어 보이도 바다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오직 보여지는 것이 있어 보이고 보여지는 것은 눈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밖으로 멀리 보기만을 애쓰기 보다 가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이 가장 열심일 때 오히려 적지리를 잡고 서도 인생도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아무런 불만의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제 몸이 생긴 발발 때문에 죽고 쇠는 제 몸이 난 녹 때문에 쓰러지고 맙니다.

- 본문중에서 -

길손여행 엮음 전화 02)913-0753 팩스 02)913-0755